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Yukiko Fukagawa

본인의 오늘 강연 주제는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룩한 경제실적과 그 후유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기본적인 결론은, 그 후유증을 해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들로 인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실적을 벤치마크(bench-mark)하는 작은 붐(boom)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새로운 움직임이다. 실제로 본인은 언젠가 한국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실적에 대해 언젠가 주목하고 배우기 시작할 때가 오리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의 강연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인은 감정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종종 무시되고 있는 세계화의 세 가지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장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선진시장보다는 신흥시장이 세계성장을 더 많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슈는 세계경제에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패턴이나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한-일 양국은 아시아 내의 1세대 산업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토대는 WTO보다 GATT의 유형에 상당히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세 번째는 한-일 FTA 문제이다. 한-일 FTA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양국의 시장은 많은 측면에서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FTA 협상은 양국 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제도화하여 확인만 해주면 된다. Lehman Brothers가 붕괴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세계화의 파고가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을 언급한 다음, 지역주의와 경쟁체계에 대한 본인의 논리에 근거하여 약간의 함의를 도출한 후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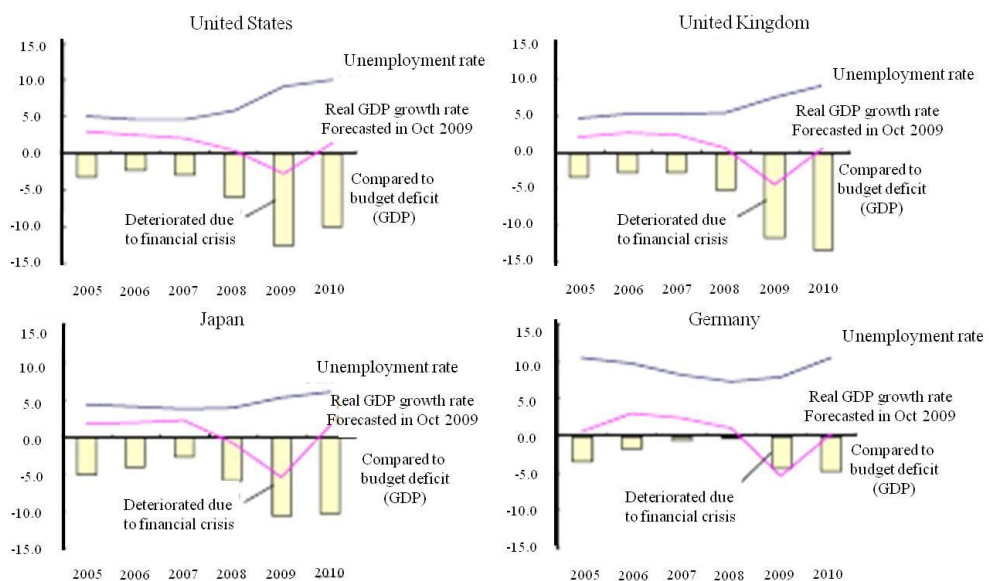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는 아직도 선진국 경제 내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느낌은 매우 낙관적인 편이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 이 글은 2010년 4월 8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착륙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막대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또한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연합의 위기도 존재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경제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기초와 국가부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변동이 심한 유동성이라든지, 신용부족 또는 과잉을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추후 이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왜곡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같은 큰 문제도 있다. 또한 지금은 이번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실물경제에 의한 조정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리스크(risk)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리스크가 그러하다. 세계경제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흥 경제강국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로 의존하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곧 자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세계는 역사적 변화의 와중에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매우 불확실한 편이다. WTO는 교착상태이며,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도 사실상 실패했다. G-20가 G-7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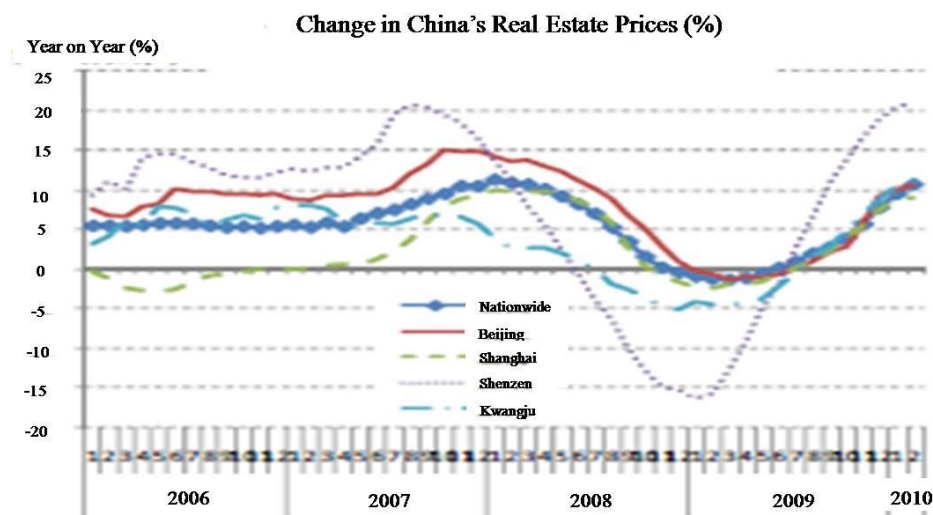
Needs for exit policy in mature markets



<그림 1>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10%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영국은 더욱 심각하다. 독일의 경우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모든 선진국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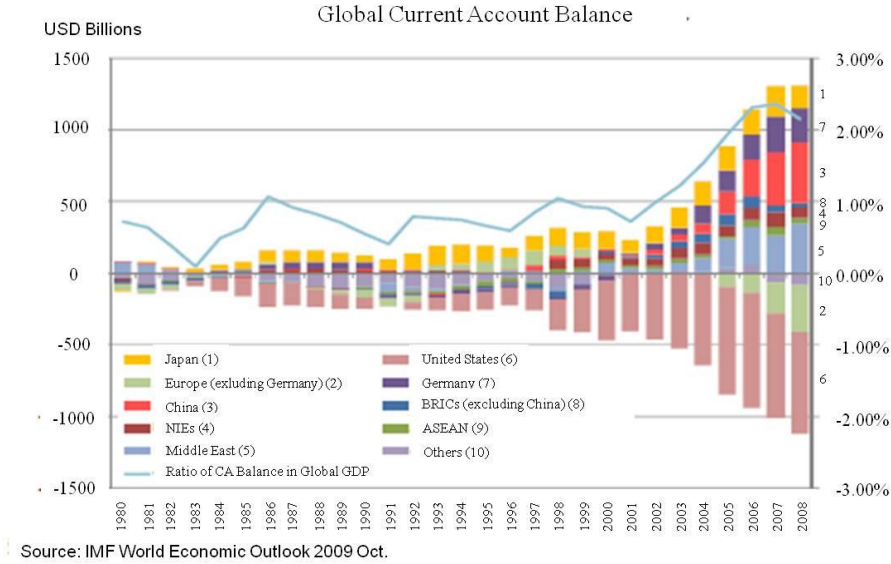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였으며 아시아는 오랫동안 여기에 재원을 조달해왔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자본흐름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태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흐름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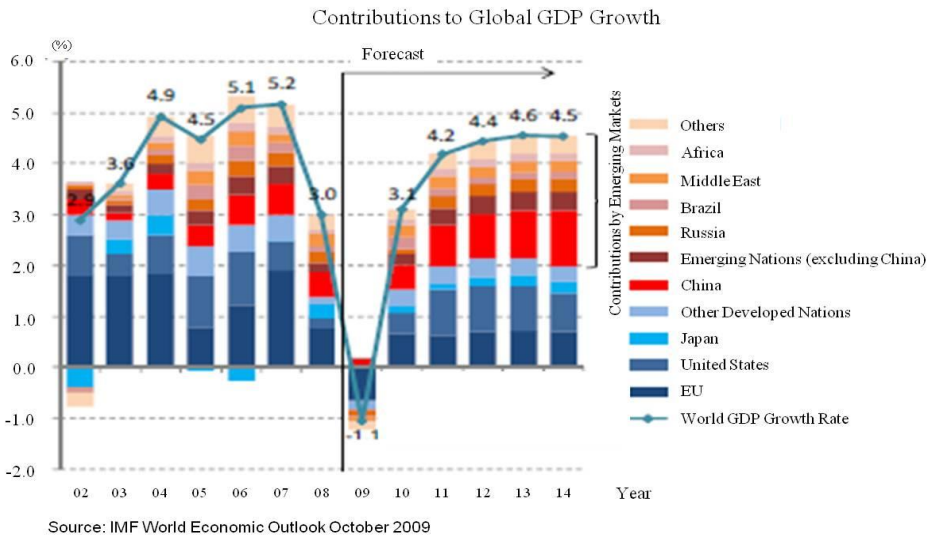


중국은 매우 전략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약간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미국 달러화의 장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달러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실제로 취하지는 못했다.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달러화에 투자한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아태지역, 특히 신흥시장국으로 복귀한 관계로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너무 많은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시장이 크게 부양되었다. 홍콩과 인접한 셴젠(심천)이 특히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점선 그래프). 더구나 이러한 변동 폭이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매우 커졌다.

<그림 3>



<그림 4>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적자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부채에 대한 재원조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언론이 G-2라는 말을 선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진국 경제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들의 경제성장은 앞으로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 중동지역 국가 등과 같은 신흥시장국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전에는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신흥시장국들의 기여도가 30%에 불과했다. 지금은 50%를 상회하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신흥시장국들이 이러한 기여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4> 참조).

따라서 신흥시장국들의 성장구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일 간의 경제실적을 비교함에 있어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이미 일본인들도 이러한 점을 많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한국의 4~5개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흥시장국들의 환경에 매우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경제구조상 서로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우선 이러한 인구대국들은 대량소비 면에서 일본 및 한국과는 크게 다른데, 일본과 한국은 소비행태가 매우 비슷하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화에 있어서 신흥 경제국들이다. 그리고 고참 경제국에 비하여 신흥 경제국의 시장수요는 극히 다양하다. 신흥 경제국들은 인프라(infrastructure)와 아주 단순한 소비재들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매우 정교한 서비스 역시 필요로 한다. 그들은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하급기술에서부터 하이테크기술 제품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신흥 경제국들이 소득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역시 과거에 한국 및 일본이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은 세계시장의 분할과 산업집중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대학시절에 배웠던 헥셔-오린(Heckscher-Ohlin) 모형과 비교우위를 사용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제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는 점을 본인은 종종 느낀다. 지금은 경제들의 실질적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나 방대한 산업집합체의 성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들은 국가보다 지역에 더욱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GDP와 같은 수치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흥시장국들은 확실히 비(非)교과서적이며, 시장세분화가 매우 독특하다. 우선, 신흥시장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 특히 인도와 브라질은 아주 젊다. 급속한 도시화는 세계화의 또 다른 최근 현상이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중국이다. 중국경제의 경우, 각 대도시와 이를 둘러싼 주변경제권에 의해 크게 지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방에서 도시로 계속 이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중국의 모든 서비스 기능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온 가난한 근로자들이 상품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농촌에서 거주할 때보

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도시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비교적 정교한 금융서비스의 혜택, 즉 금융대출도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는 정교한 마케팅과 광고로 자극받게 된다.

디지털화는 또 다른 세계화의 모습이다. 한국은 IT사회로서 그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흥시장국 소비자들은 기술로부터 폭 넓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들의 정보기반은 과거의 TV 대신에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크게 구성된다. 이 소비자들은 유행상품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이 최신 유행의 최첨단 기술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그러한 제품을 구입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까지도 추세를 따르려고 애쓴다.

이렇듯 신흥시장국들의 성장구조는 한국과 일본이 발전할 때와 크게 다르다. 신흥시장국들은 많은 새로운 소비자들을 시장에 진입시키고 있으며, 인프라, 지리, 가족규모, 생활방식에 있어서의 엄청난 다양성으로 인해 이 소비자들은 심지어 단일국가 내에서조차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세분화 역시 존재하는 바, 이는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거대 신흥시장들 내부의 세분화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정보는 이미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나 블로그, 또는 트위터(Twitter)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신흥시장국들 경제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이 시장들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범위의 경제 역시 아주 중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소비자들은 매우 따지기 때문에, 가격책정은 신흥시장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 IT형의 소비자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반응을 하는 관계로 소비자 만족도는 아주 중요하다.

본인이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본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이 이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잘 맞추기 때문이다.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다. 가끔은 이러한 것이, 이른바 “IMF 위기”라고 하는 아픈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하든지 해야만 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터득하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그러한 종류의 아픈 경험에 마주한 적이 없다. 일본시장의 규모가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일본 기업들은 단순히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취약점이다. 그리고 신흥시장 내의 시장점유율 확보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약점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더 근본적인 사실인데, 산업화의 모델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일부 국수주의적인 한국 언론들은 대일(對日) 무역적자에 대해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일종의 국가라는 틀에 매인 사고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국경을 초월하는 산업네트워크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때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동아시아의 성장모델을 특히 각국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그 모습들이 많이 다르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1세대 산업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민족국가와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각국의 현지 기업가정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른바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의 비중이 높았다. 기술부문에 있어서는 기량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기량을 쌓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을 통해 형성된 산업자본이 필요했다.

2세대 산업화 국가들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같은 ASEAN 국가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 기업가들의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FDI 유치에 시도했다. 각국 현지 기업인들은, 정치적으로 부여된 기득권과 같은 지역적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교자본이 대세였던 관계로 2세대 자본은 무역 및 상업부문에 대한 자본이 보다 많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다음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3세대 산업화 국가들을 살펴보자. 이들 국가는 심지어 2세대 국가들과도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경제가 매우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FDI의 유출과 유입에 대한 구분이 없다. 우리 시대의 개발도상국들은 통상적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FDI를 유치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나중에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 개방하고 해외투자도 했다. 그런데 이 3세대 국가들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중국 기업들은 M&A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는 중국이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중국경제는 FDI에 크게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과거형의 산업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관료들은 “중국은 과거 상당히 많은 FDI를

수용한 결과, 현재 중국경제의 많은 부분이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게 되었어. 이제 중국은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만 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1세대 및 2세대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세계화되고 IT 인프라가 훌륭하게 구축된 관계로, 3세대 국가들은 아주 다른 형태의 경제발전을 따르고 있다. 지금은 금융부문이 크게 세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1세대 국가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국내저축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3세대 국가들에게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의 산업화는 1세대 및 2세대와는 매우 다르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은 X, Y, 그리고 Z를 이루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FDI 및 여타 외부 경영자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는 의사결정 속도이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속도는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관계로, 노동력의 다양화 또한 지극히 중요하다. 리스크는 항상 중요하며 언제나 존재한다. 리스크 관리가 잘못될 경우, 그 여파는 신흥시장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지금은 세계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민간 관계가 필요하다. 본인이 한-일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나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점에서 다시 말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세계경제가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한국 기업들은 1997년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되는데 크게 기인한다. 우선 한국형 기업소유구조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가령, 삼성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이 “IMF 위기” 와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족경영이 국가경제를 망친다고 크게 비난했지만, 지금 한국은 그러한 구조의 덕을 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일본 기업들은 현재의 국면에서 한동안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하다. 일본 기업은 방대한 관료주의적 조직이어서 절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이 항상 허공에 떠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그토록 늦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경영이다. 일본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른바 “넘버2 신드롬(Number 2 Economy Syndrome)”이다. 일본에 있으면, 일

본경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거나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느끼지 못한다. 불행히도 일본은 항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IMF가 일본경제에 결코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을 제외한 세계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측면에서 일본은 현 상황에 맞도록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업들이 이따금 노조 등과 같은 국내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한국 바깥에서 비교적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한국 기업 간부들이 일본 기업 간부들보다 영어나 다른 나라 말들을 훨씬 더 잘하는 탓인 부분도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유능한 국제적 인재들을 스카우트함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수용한 상태이다. 인적자본 면에서 보면 Sony나 Toshiba 같은 일본의 주요 기업들보다 삼성이 훨씬 더 세계화되어 있다.

본인은 한국 정부 내에 과거 스타일의 “주식회사 한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현재 사업방식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원전설비나 고속철을 해외에 판매하자면 정부 간의 거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을 통한 판매촉진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대통령 제도 그 자체 또한 혜택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기업경영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거래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 역시 일본의 한국 따라잡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쳐지는 주요 요인들이다.

비록 일반적인 기본사항들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매우 다르다. 일본은 세계경제위기가 금융부문보다는 실물부문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중국이 자국의 환율과 자본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자본수출국이다. 일본 금융부문이 충격을 받은 것은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해외자산이 악화된 이후이다. 물론 일본은 온갖 것에 투자를 했다. 국내적으로는, 일본 내 부실채권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들은 일본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이러한 점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는 매우 다른데,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5년”이 Koizumi 총리와 함께 끝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금융부문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평가절상된 것이다. 엔화는 비교적 리스크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제통화였기 때문이

다.

하지만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은 실물부문이 고통 받고 있다.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기록적으로 감소하면서 급속히 시작되었다. 엔화가치의 상승(그래서 중국 및 한국 기업에게 시장을 잃게 되는)에 대한 일본 선도기업들의 대응은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높여, 최첨단 기술집약적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일본 기업 간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일본 제품들이 비싸기 때문에 잠재적 시장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밖에는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경제가 미국의 거품 소비자들에게 그토록 의존하게 된 것이다. Toyota가 이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Toyota는 미국 내 자사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러한 것이 시장변화에 늦장 대응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 심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또 다른 분야는 기계류 같은 중간재였다. 한국의 경우, 최종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 수입량을 줄여서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최종재를 선진시장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또한 아시아 주요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위기 동안 일본의 이 두 가지 수출품목이 고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세계적인 수요위축의 최종 기착지였던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일본의 급격한 소비감소이다.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일본경제는 수출의존도가 한국의 약 1/4 정도로,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내수시장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일본 기업의 수익성에 압박을 주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고용 면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들은, “IMF 위기” 시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과감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실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은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국내소비가 되살아 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일본 정계에는 55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계변화는 구(舊)소련 붕괴와 대비시켜 볼 수 있다. 과거 자민당(LDP)의 시스템이 상당히 단단하게 자리 잡았었던 관계로, 일본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까지도 매우 혼란스럽다. 일본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탐색중이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본인이 볼 때, 한국은 롤러코스터형 금융위기로부터 겪는 어려움의 거의

막바지에 왔다. 한국의 위기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팽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통화문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과 투자자들도 등장했다. 국내 금융자산에 비해 글로벌 자본이 방대했기 때문에, 한국은 자본 유출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이번 위기는 실물부문이 아닌 금융부문에서 주로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물부문에서 한국의 에너지 효율 면은 여전히 일본보다 나쁘다. 그래서 에너지 및 자원 가격급등은 항상 한국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수출하락 면에서도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흥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한국경제는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아마도 한국경제의 어두운 측면은,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일 것이다. 10년 전의 대규모 구조조정 덕분에, 고용에 대한 충격은 일본보다 한국이 아주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침체된 상태다. 시장이 한층 유연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차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에 대한 충격이 작아 보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필사적이다. 한국경제에 대하여 하향압력을 주기 시작하는 정부부채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 등의 문제에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만큼 이는 특히 그러하다.

세계적 변화 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중대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스스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르도록 노력한 반면에, 일본은 “넘버2 증후군” 사고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FTA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기업들은 계속 내수시장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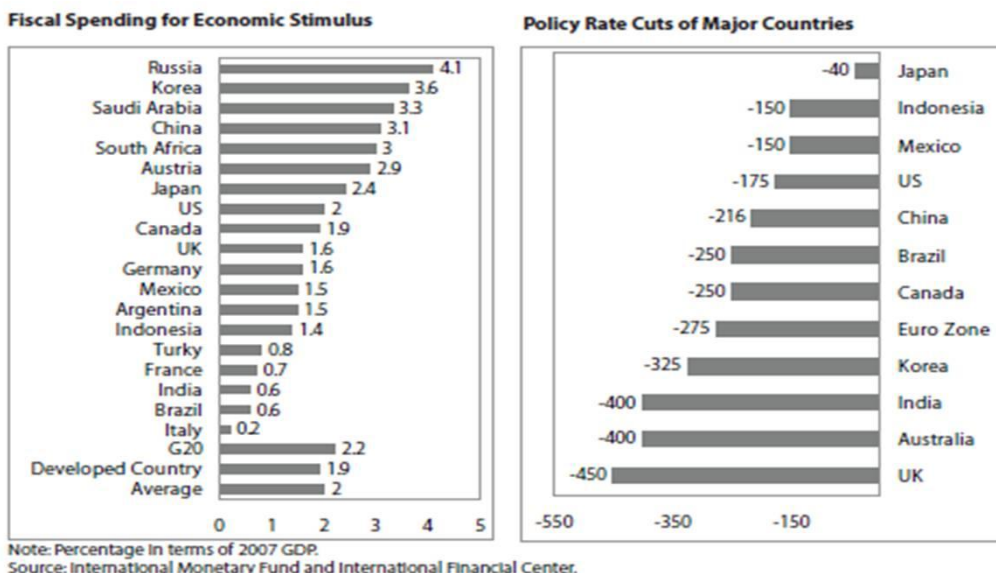
간단히 말해 일본은 세계화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번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엔화의 명목가치가 상승하였고 일본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달려들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한국 제품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세계금융질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세계 최대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금융시스템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추종자(follower)이다. 일본은 조용하게 대응하는 식이다. 반면에 한국은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오는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된 나라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에너지 효율국이자 자원절약 생산국가로서 줄곧 칭찬을 받아왔다. 그러나 때로는 일본 스스로 이러한 면을 비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좋은 비유가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이다. 김연아는 글로벌 모델을 나타낸다. 김연아는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경기규칙에도 잘 적응했다. 그래서 큰 리스크 없이 아사다 마오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김연아와 달리 아사다 마오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그녀는 러시아 코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러시아 스타일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다. 그래서 아사다 마오는 리스크가 매우 크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프인 ‘트리플 악셀’에 집착하고 있다. 아직도 아사다 마오와 그녀의 코치는 운동선수로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고난도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기업이 바로 아사다 마오와 같다. 대다수 경영진들이 엔지니어인 일본의 기술기업들은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 기술에만 몰두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지나치게 돈을 들여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모델은 김연아와 같다. 한국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제품에 맞는 큰 시장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시장이 나타나면 뛰어들어 큰 수익을 낸다. 한국은 중간기술의 시장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일본 기업들이 내세우는 전략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림 5>

Policy Response to the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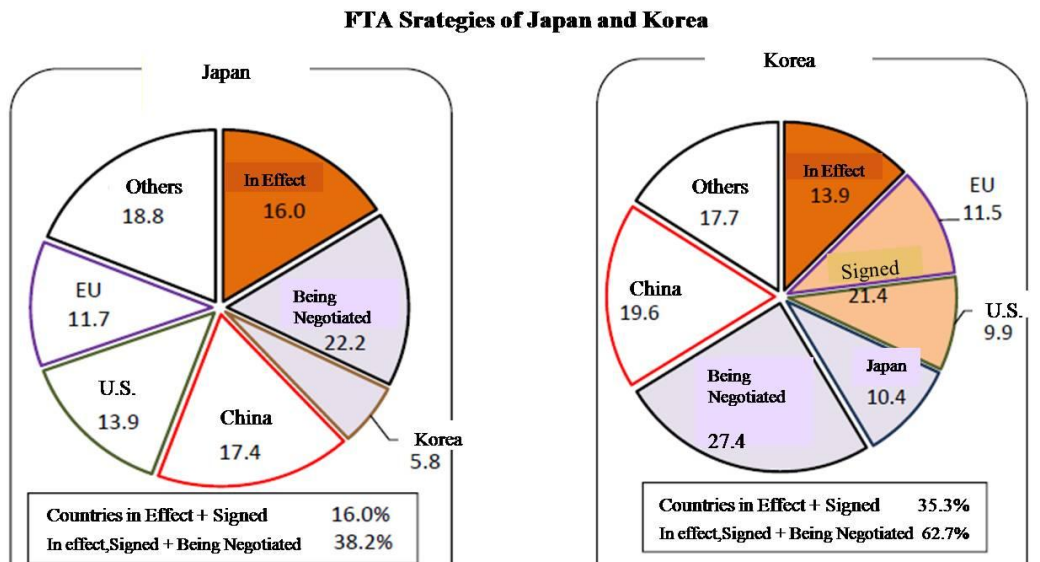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은 대규모 정부지출의 지원이 매우 절대적이었다. <

그림 5>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나타낸다.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총 재정지출은 GDP의 3.6%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일본은 GDP의 약 2.4%로 훨씬 낮다. 또한 금리인하 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저조하다. 한국은 이번 위기 기간 동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보다 사정이 한결 나았다.

일본은 아직도 스스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림 6>은 비준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출하게 될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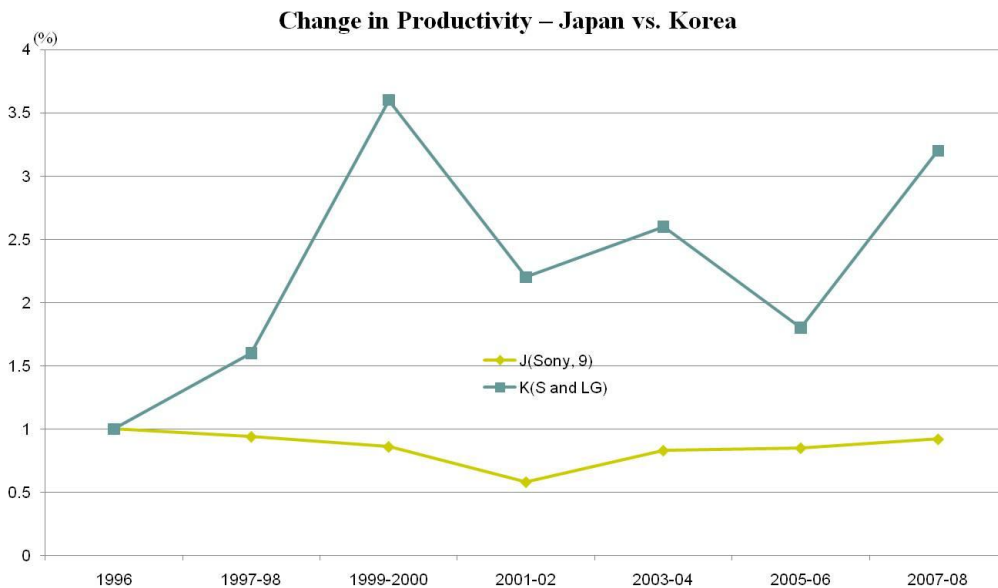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모든 협정(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협정을 포함한)이 비준되면 한국 수출의 62.7%가 FTA에 의해 커버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편, 일본의 FTA 협상은 매우 더딘 상태인데 일본의 농업부문 때문이다. 이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새로 집권한 민주당에도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어 왔다. 일본은 농업부문의 자유화에 있어서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3세대 산업화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세대 산업화 모델에 머무르고 있다. 첨단기술이 힘이라는 환상이 일본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아서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선도기업들은 시장 세분화 및 집중화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다. 일본은 정부에서부터 선도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Baramaki* 문화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장미 뿌리기”로 번역되는 *Baramaki*는,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공공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일종의 “선심공세”와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무언가를 세분화하거나 한 가지에 집중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본은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리고, 결과도 결코 명확하지 않다. 한국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 덕을 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가족경영체제의 덕도 보고 있다.

<그림 7>



<그림 7>은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위쪽 선은 한국의 삼성과 LG를, 아래쪽 선은 일본의 Sony와 그 밖의 9개 전자회사들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은 1996년 이후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한국의 주요 제품과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표 1>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DRAM, 휴대폰, 자동차, TV 모두에서 2005년 이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표 1>

Global Market Share of Korea's Major Products

	(Unit: %)				
	2005	2006	2007	2008	2009
DRAM	47.3	44.8	49.0	49.6	61.0
Mobile Phone	19.4	18.1	20.7	24.5	30.6
Automobile	4.3	4.5	4.8	5.1	7.3
Shipbuilding	35.6	35.2	35.6	33.8	34.4
TV	19.6	24.3	28.2	33.7	36.1

Note: 1. Figures for 2009 are estimates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 For Automobile, figures are market share for U.S. 2009 figures based on January through October

Source: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nd the Korea Shipbuilders' Association

마지막으로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일 양국 시장이 이미 통합되었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한다. 비록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두 나라의 거시경제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일본은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자본과 중간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선도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비생산적인 부문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하는 풍토와 *Baramaki* 문화 때문에 이를 멈출 수가 없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빈약했을 때에는 한국이 일본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일본은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으며 한국은 강력한 경쟁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원화가치의 변동에 매우 시달렸다. 모든 나라는 반드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대신 서비스 부문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 부문은 이미 세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은 아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일한 분야로, 그럴 경우 관광, 문화, 교육, 금융, 물류와 같은 산업에서 고용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지리적 조건은 아주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이웃인 관계로 양국 간에는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여러 면에 있어서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신흥시장에의 접근과 글로벌 모델의 적응 면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시소게임 중에 있다. 일본은 신중한 분석 없이 중요한 경영자원을 모두 연구개발 분야에 흠뻑려 놓았다. 이는 리스크가 큰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마케팅과 같은 여타 부서의 예산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일본은 유능한 인재를 전 세계에, 특히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 한국으로 많이 유출되었다. 본인은 최근 삼성이 일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그 반대다. 제품개발이 소비자 중심이다. 또한, 신흥시장에 대한 집중적 마케팅과 광고로 한국 기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기업은 때때로 과감하게 대량생산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것이 수익성 증가와 특허 및 인적자원 향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고품질 중간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엄청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세계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반면 세계화는 한국에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경제대국 패러다임에 도취되었고, 일본의 FTA 협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반세계화 감정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대응 면에서 볼 때, 본인은 일본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 때에 한국은 세계화에 대해 크게 불만을 터뜨렸었다. 지금의 한국 정치싸이클은 일본과 크게 달라 보인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을 제외한 내수시장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본에 비해 훨씬 덜하고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세계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긴박감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 한국은 아마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벤치마킹 목표가 필요할 터인데, 일본은 더 이상 의지할만한 곳이 못 된다. 일본은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독자적인 제품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저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따라하게 되어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큰 나라가 아

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불안정에 대한 균형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정된 시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한-일 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이해관계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현재 두 나라 모두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표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도 있는 시장통합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성장모델이 변하였기 때문에 산업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큐슈(Kyushu)에서부터 울산까지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cluster)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한다면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두 나라는 양쪽 모두 세계적 경쟁의 영향을 받는 만큼,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장 및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가치관이 아마 바뀌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공통점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강연의 결론은 세 가지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세계는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다극화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이러한 현실에 잘 적응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일 시장간에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통합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시소게임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실에 대해서 일본보다 성과가 좋았다. 이는 세 번째 현실, 즉 시소게임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일 간의 통합은 금융, 환경, 물류와 같은 양국 공동의제에 기초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시작하기 위한 핵심 토대는 일본 스스로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 한국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보완해 주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질의 · 응답

질문 나는 주한 브라질 대사로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 개발도상국에서 온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내 입장으로는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선진국 사람들이다. Fukagawa 박사께서 매우 포괄적인 설명을 하였지만 세계경제의 한 부분인 농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보통사람이다. ‘경제’라는 용어는 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ekos’에서 유래되었다.

집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먹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세계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Fukagawa 박사께서 기술경쟁력과 기술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앞으로 인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구는 증가하나 식량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맬서스주의자¹⁾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 보호주의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는 대체로 보호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들은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팔기 원하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보호주의적이며, 쌀과 소고기 같은 식품의 수입을 원하지 않는다. 요즘 경제학이 조금 왜곡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이나 노동력, 시장 이론은 18세기의 산물로서 아주 고리타분한 것이다. 세계화를 이야기하려면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에 여러분이 마이크로칩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며 옥수수, 밀, 콩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농업종사자가 아니라 산업부문 종사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 이러한 음식과 물은 모두 제3세계에 있다. 여러분은 마이크로칩을 팔면서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전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답변 식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아마 아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산업일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중국을 포함하여 식량을 1인당 기준으로 보면)은 자원빈곤국이며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미래식량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브라질 및 구(舊)소련 일부 국가들처럼 농업을 위한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물 산업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일본이 환경산업에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환경을 더욱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주요 신흥국들과 공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일본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유럽 국가들이 참치어획과 관련하여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은 참치를 개량하여 참치자원이 지속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재차 언급하지만 연구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지혜에 대해서 낙관적일 이유가 존재한다

¹⁾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는 인구과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영국의 경제학자 T.R. Malthus의 견해 및 이를 지지하는 이론

다.

질문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다. 하토야마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 다소 반미적인 정책들이 통과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하토야마 총리의 가족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토야마 총리의 조부 역시 총리를 역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그의 조부는 맥아더 장군을 전범으로 묘사하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결국 그 칼럼으로 인해 그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가 반미감정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 추측으로는 이러한 하토야마 총리의 배경이 그의 정치적 및 경제적 정책들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하토야마 총리의 가족사가 흥미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관계가 일본과 세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미-일 동맹에 매우 몰두했었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 정책들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그는 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동시에 그는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이다. 그의 가족들은 유럽통합에 관한 매우 유명한 책자를 번역하였으며, 그 역시 이러한 유형의 통합에 매우 끌리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침체로 업계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총리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공동체 계획은 업계, 관료계, 그리고 하토야마 가족과의 이해관계가 혼합된 것이다.

Toyota 사태와 관련하여,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를 미-일 관계 악화로 인한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정치인들은 Toyota의 실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늦장대응을 한 Toyota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화가 난 미국의 안보로비스트들이 Toyota 사태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Toyota 사태와 미-일 동맹 등의 이슈들이 동시에 공명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 세계화가 쉬운 나라는 어느 나라이고, 어려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답변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이 가장 쉬울 것이다. 싱가포르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잃은 것은 거

의 없었다. 또한 한국도 영어교육에 훌륭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언어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믿음이 일본경제를 뒤쳐지게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질문 한-일 양국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통합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기업들 간에는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일본 기업들 간의 합병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특히 나이가 든 세대들 사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업매매가 좇불시위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고용이 유지되는 한, 사람들은 누가 기업의 경영권이나 경영진을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해고가 없다면, 일본 사회는 외국 기업들의 M&A 활동에 부정적이지 않다.

한국 기업들과의 M&A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산업화 1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1세대는 M&A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에게 자금은 있지만, IBM 개인용 컴퓨터 인수를 비롯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M&A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다. 비록 한국이 경영다양화에 필사적이고, 중국 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내부지향적이다. 또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질적 경영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양쪽 당사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은 M&A에 쉽게 적응했기 때문에 일본 및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중국은 작금의 세계화 시대에 영향을 받아왔고 21세기형 자본주의를 배웠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또는 20세기형 자본주의를 습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쉽게 M&A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M&A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인수하라는 것에도 보수적

이다. 역사적인 배경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